유 진 소 목사와 함께

선교를 꿈꾸다

Q 목사님~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선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생각과 비전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교비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호산나교회에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A 저의 목회철학은 ANC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할 때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집으로 따진다면 예배라고 하는 기초위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다는 생각입니다. 그 두 개의 기둥중의 하나가 바로 **회복**입니다. 복음은 곧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LA에서 했던 내적치유사역은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회복은 관계회복뿐 아니라 가정의 회복, 개인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품어야 하는 비전, 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학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 교회는 선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이어서가 안 되고 교회는 자체가 선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교회의 선교비전도 그러한 축에서 가기 원해요. 물론 더 많이 선교하면 좋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무조건 다 무시하고 갈 순 없으니까 있는 자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 교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가운데 하나로 본다' 라는 것이 저의 선교의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Q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두 교회를 말한다면 하나는 예루살렘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안디옥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교회에 없는 안디옥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따라야 할 선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교회와 같은 선교적 모델로서 우리 호산나교회의 역할에 대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교적 관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저는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봅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예루살렘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는 바로 선교적 마인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였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멈춘거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사건은 성령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종의 자작극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교회가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딱 멈춰버리니까, 그리고 내부 문제에 잡혀있으니까 그 안에서부터 문제가 터지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비전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가야될 비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과부의 구제문제였거든요.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이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사도들과 리더들이고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나중에 일곱 집사가 된 그룹들인데, 이 두 그룹이 함께 있었지만 구제를 하는데 있어서 헬라파가 빠지는 걸 보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갈등이 아니라 너희한테 뭔가가 지금 막혀있다고 하는 성령의 경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조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일은 집사들이 맡아라."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이 그룹들이 결국은 전부 다 헬라인들이거든요.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 되었으면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야하는데 그게 아니고 스데반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그때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스데반이 개인적으로 실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성령님의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에 의해 참 절묘하게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멈추니까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을 일으키면서 행 1장 8절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외에는.....다 흩어지니라"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나간 그 사람들이 세운교회가 결국 안디옥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의해 수정된 버전(revised version)이다. 예루살렘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지만 선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다시 새롭게 만든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교회 자체로서는 예루살렘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뒤에 마치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처럼 성령 감동으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호산나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두 싸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안디옥교회 버전으로 갈 것이냐 인 것이지요. 많은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싶어 하죠. 모여서 우리한테 있는 아름다운 걸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의 전환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저는 호산나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산나교회가 단지 그냥 교회안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의 선교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집어넣으신 가장 중요한 청사진 중에 하나인 선교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다음 얘기에요. 교회는 현재 상황에서부터 가장 적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선교적 비전을 향해 반드시 나아가야됩니다.

Q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적 비전을 안디옥교회를 모델로 한 사도행전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들으면서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선교 비전은 지도자 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꿈을 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호산나 성도님들과 어떻게 함께 선교의 꿈을 꾸고, 목사님의 선교 비전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요?

A 호산나교회의 선교비전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메시지입니다. 담임목사가 강단에서 주일마다 선포하는 메시지에서 선교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궁극적 적용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들었을 때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항상 삶의 적용이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아니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소위 번영신학이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설교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적용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중 하나가 회복입니다. 회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또 하나가 바로 비전이에요. 선교는 비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도들에게 주는 비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목사가 설교하면서 선교를 그의 비전으로 함께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안에 선교에 대한 양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하니까요. 호산나교회에도 선교 훈련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 세미나, 프로그램 기초코스부터 심화코스까지 수료하면서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선교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미션 프로젝트가 있어야 합니다. 호산나교회 전체로 볼 때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아 우리 교회의 선교가 정말 이렇게 되고 있구나!"하고 알고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호산나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는 더욱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ANC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그것이 멕시코에 있는 신학교 사역과 멕시코 전체의 비전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선 '아! 우리교회의 선교는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호산나교회에도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선교에 상징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싶어요. 그게 어느 나라에 집중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혹은 신학교나 혹은 교회개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말이죠.

네 번째, 교인들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단기선교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후원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사실 단기선교를 모두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선교는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의 방법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접 단기선교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들, 선교사 후원 기도모임들, 선교를 위한 후원헌신 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네, 목사님. 요약하면 메시지, 훈련, 선교의 프로젝트, 선교 참여(후원)가 되겠네요.

A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정리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제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ANC에서 목회할 때 계속 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ANC 이름 자체가 선교적 교회였거든요. 올 네이션스 처치(All Nations Church)니까요. 그래서 계속 고민해왔고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일을 계속하라고 저를 호산나 교회로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Q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여쭈어봅니다. 선교 프로젝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호산나교회가 선교 프로젝트로 이슬람 선교와 실크로드 선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한다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지역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지역적, 시대적 소명입니다. 지역교회가 그 지역이 있고 그 시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일반화시킨다면 그것은 무척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호산나교회에서 선교를 한다면 이 호산나교회가 있는 이 위치와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할 가장 주된 타깃은 아시아권.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라고 봐야합니다. 동남아시아는 그래도 많이 선교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캄보디아 외에는 선교적으로 굉장히 닫히고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개발되고 커져나가면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의 제시가 너무 필요한 타이밍이 왔는데, 지금은 거기에 맞는 양육 등이 필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우리 호산나교회의 영어예배 담당하시는 분도 방글라데시에서 왔는데요, 이러한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퍼즐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되 어떻게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합니다. 그냥 옛날처럼 동남아시아에 가서 먹을 것 주고 오는 사역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지의 리더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 운동과 같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트남어예배, 인도네시아어예배, 중국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예배를 계속 섬기면서 거기에서 성장한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나오면 다시 파송해서 그 본국을 바꾸는 좋은 네트워크로 인식을 해야 하죠.

또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은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정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적 이슈는 이슬람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권을 어떻게 열 것이냐? 물론 그동안 이슬람권에 대해서 선교를 많이 해왔지만 그러나 거의 진전이 없다고 봐요. 이슬람에 대한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죠. 이슬람 선교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앙아시아라는 좋은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이지만 실크로드에 걸쳐있어요. 중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슬람이지만 특별히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의 국가들과는 연결점들이 많잖아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한국에 오가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는 중동의 정통이슬람과 달리 민속이슬람(Folk Islam)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에 대한 열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를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앙아시아들은 다 닫혔죠.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다 닫혀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선교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일하게 키르기즈스탄은 비교적 선교적으로 열려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호산나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키르기즈의 사역을 호산나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6시간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호산나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호산나교회에는 러시아어예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키르기즈스탄은 한때 복음이 왕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경교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산나 성도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가면 성지순례처럼 그곳의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그 땅이 기독교였던 것을 보면서 다시 그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꿈꾸고 그리고 실크로드 선상에 쏘시라고 하는 지역에 학교가 잇는데 가서 학교를 보면서 아이들 보고 교제하기도 한다면 비젼트립하기에 너무 좋아요. 실크로드를 밟으며 선교의 꿈을 꾸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비전트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우리교회 성도들한테는 기도제목이 되고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학생들이 나오면 그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선교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또 요즘 한류열풍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류열풍 때문에 그들 학생들에게는 한국에 오는 게 꿈이에요. 한국어 과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아직은 이슬람 아이들이지만 준비된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아이들을 한국에 오게 하고 여기서 정말 어떤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실크로드 선상의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네 목사님.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북한 선교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한선교의 사역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가서 접촉하는 사역, 탈북 시키는 사역, 탈북민들을 케어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통일 이후에 북한선교를 할 수 있는 복음적 힘을 교회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북한선교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탈북민들을 케어하고 나아가서는 탈북민 예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북한 선교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사실 지역적으로 보거나 상황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죠.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도 교회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시급하다 이렇게 할 순 없어요. 그러나 북한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선교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기도해야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가서 하는 것은 기다리자는 생각입니다. 특히 남한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돈 가져다주면 다 엉뚱한 곳으로 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은 가도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구호품을 보낸다던가, 식량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주된 사역으로 삼기에는 어렵죠. 정말 북한은 언어도 같고 지역도 가깝고 시대적으로도 볼 때 긴급한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며 배우는 것이며 또 탈북민들을 케어하는 것이며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가서 섬길 수 있는 영적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처럼 가는 것은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Q 네 감사합니다. 현재 세계화, 글로벌화로 인해 한국에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식통계는 160만 명인데 실제적으로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 이상 이라고 할 정도로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는 지역의 미전도 종족까지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에서는 6개의 외국어예배가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계에서도 국내 이주민선교라는 이 시대의 선교의 새로운 트렌드로 인식하고 있고 선교적 관점에서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사회가 다인종, 다문화사회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경험과 비전과 견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다문화 이주민 사역은 절대적으로 선교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신 선교의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호산나교회 안에 6개의 외국어예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을 그냥 상황에 따라서 여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건 선교적인 의미에서 외국어 예배의 의미를 성도들하고 나누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우리 다문화에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 돌보고 부흥시켜서 점점 많은 믿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훈련된 좋은 일꾼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 나라로 다시 파송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겠죠. 그 과정 속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해하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그런 선교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에 사역으로 좀 더 커지고 이 언어예배들이 좀 더 성장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교인들한테 선교적인 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일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언어그룹들이 중심이 되서 팀에서 음식 페스티벌 같은 걸 한다든가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또 단기 팀이 나갈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외국어예배하고 함께해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간다든지, 혹 갈 수 없으면 훈련받을 때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찬양을 배워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제 속에서 그들이 점점 선교 마인드에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준비가 되고 우리도 준비가 되고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주는 쪽도 너무 좋고 또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향해 선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또 열방의 여러 종족들이 호산나의

멤버로 같이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 호산나교회에는 파송선교사가 15가정이 있고, 협력선교사가 131가정이 있고 또 국내선교에서도 70여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호산나교회가 지향해야하는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 협력교회에 대한 파송, 협력관계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A 저는 ANC목회할 때에도 그랬지만, 일단 파송선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파송선교사는 그야말로 '파송' 이기 때문에 호산나교회 교인들이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파송하면서 교인들이 함께 따라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파송선교사니까요. 예를 들어, 만약에 호산나교회에서 방글라데시에 한 선교사를 파송했다하면 호산나교회가 방글라데시에 나간 겁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파송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끝없이 계속 연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계속 지원해줘야 해요. 그래서 파송은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말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고 왔을 때 사역에 대한 피드백이나 소식을 계속 받고 기도해주고 오면 케어해주고 필요하면 또 지원하는 이런 진정한 파송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협력은 조금 다르죠. 협력은 다만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파송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협력도 우리가 협력을 하면 재정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돕는 것 뿐 아니라 그 협력 선교사님에 대해서 선교부에서 계속 연결하면서 우리교회 다락방들이 그 중에 하나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력선교사님에게 계속 선교편지가 오면 각 다락방에 연결해주고 기도하게 하고, 한 다락방이 아니라 몇 다락방이 함께 연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다락방이 "우리가 이번 여름에 단기선교를 나간다."하면 그때 그 협력 선교사님을 통해 나가고 이런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정만 일부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 네트워크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이 정확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선교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선교라는 것은 정말 교회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 교회의 영적 자존감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잘 감당하면 교회가 영적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많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교회가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선교에 헌신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고 그로인해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는 역사를 원합니다.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성도들 중에 일부는 '선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선교는 특별한 분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선교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선교기도모임이든, 선교후원을 작정하든, 직접 선교를 다녀오든, 아니면 선교사역에 도움을 주든 하면서 다 함께 하는 선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